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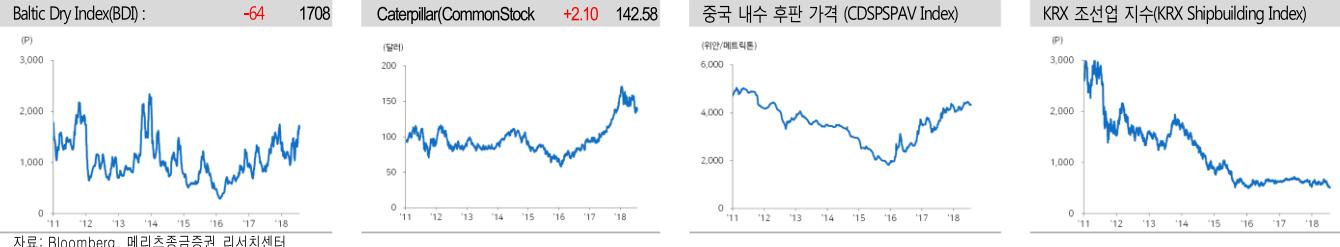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227.8	15.4	104,500	6.0	-3.2	-12.2	8.9	72.8	34.9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382.7	21.0	330,500	-5.2	-6.8	-21.5	-13.3	4.5	3.7	0.6	0.5	14.1	14.7
현대엘렉트릭	595.0	4.4	58,300	-1.9	-19.4	-32.6	-48.9	5.5	4.8	0.5	0.4	9.3	9.7
현대건설기계	1,175.3	9.2	119,000	2.1	-17.9	-31.8	-29.6	7.6	5.6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3,975.3	16.6	6,310	2.4	-14.3	-17.7	-2.5	39.8	19.7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685.5	5.4	25,050	8.4	-5.8	-1.4	80.2	6.9	10.1	0.8	0.7	11.6	7.2
현대미포조선	1,850.0	10.0	92,500	2.7	5.2	0.7	17.5	20.0	14.4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00.7	6.4	2,835	1.4	-9.6	-12.8	-14.4	57.0	14.2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27.9	22.2	89,400	7.5	-3.4	-5.8	64.3	15.8	15.4	2.2	1.9	14.6	13.3
두산밥캣	3,147.8	25.5	31,400	1.8	-2.6	-0.8	-12.3	11.5	10.8	0.9	0.8	7.4	7.6
현대로템	2,341.8	7.4	27,550	4.0	-5.7	3.9	46.9	35.5	24.2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338.3	48.5	24,850	2.9	-8.6	-6.6	104	11.2	103	1.0	0.9	8.8	9.0
성광밴드	303.2	16.2	10,600	1.0	-7.4	-13.8	6.2	937.0	38.0	0.7	0.7	0.1	1.8
태광	287.5	13.1	10,850	4.8	-10.0	-22.5	-10.0	64.8	31.6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722.0	14.1	14,700	-0.3	-7.8	-13.8	-4.2	18.0	9.3	0.5	0.5	3.0	5.0
두산인프라코어	1,985.8	17.3	9,540	-1.5	-4.6	1.8	9.8	6.5	5.9	1.1	0.9	16.9	15.7
두산엔진	126.0	4.0	3,825	0.0	-3.2	-11.7	48.9	-7.5	-10.1	0.3	0.3	-2.7	-3.6
한국항공우주산업	3,333.6	14.5	34,200	-1.0	-19.3	-24.5	-27.9	24.8	19.7	2.8	2.4	10.9	13.1
한화테크원	1,168.3	11.1	22,450	-1.5	-11.3	-14.1	-36.8	35.5	16.0	0.5	0.5	2.1	3.6
LIG넥스원	751.3	9.2	34,150	-1.3	-22.1	-20.7	-42.9	16.1	10.7	1.2	1.1	7.7	10.9
태웅	289.1	4.8	14,450	4.3	-11.6	-21.5	-25.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59.7	3.5	5,920	5.9	-15.5	-10.6	17.2	N/A	N/A	N/A	N/A	N/A	N/A
한국기본	243.5	12.2	5,540	3.9	-9.2	-9.3	3.4	324	133	0.7	0.7	2.4	4.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Delos splits 12-VLEC \$1.5bn order between Hyundai and Samsung

미국 Delos Shipping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각각 3+3척 총 9.3만CBM급 VLEC를 발주했다고 알려짐. 총 발주규모는 15억달러로, 이번 주 삼성중공업이 공시한 특수선 3척의 계약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곧 계약을 확정할 전망이며, 국내 조선소가 수주한 요인은 납기라고 알려짐. (TradeWinds)

Ofer's XT Shipping plots \$460m feedership feast

XT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 2+2척을 포함해, 총 4.6억달러 규모의 Feeder 컨선 14척 발주를 준비 중으로 알려짐. 나머지 선박은 중국 조선소와 6+6척 발주를 계획 중으로 알려짐. 현대미포조선에 발주된 2+2척의 선기는 척당 2.7~2.75천만달러로, 스크루버 장착으로 1,500만달러가 추가됨. (TradeWinds)

AP Moller-Maersk shares rise after Trump and Juncker talks

글로벌 1위 컨테이너선사 AP Moller-Maersk의 B 주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융자 집행위원장의 만남 후 약 5% 급등했다고 알려짐. Maersk의 주가는 무역전쟁 우려와 컨테이너선사 간 경쟁심화로 부진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 우려가 해소되면서 급등했다고 파악됨. (TradeWinds)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시기 늦춘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고, 내년 이후나 매각 시기를 가능할 수 있을 전망임. 대우조선을 굿컴퍼니와 배드컴퍼니로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인수할 여력이 있는 후보군이 없다는 점에서 매각이 어려울 전망임. (더밸)

TMS Cardiff Gas grows LNG fleet with Samsung option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TMS Cardiff Gas는 최근 삼성중공업에 2021년 인도 조건으로 17.4만CBM급 LNG선 1척을 추가 발주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연초 발주됐던 LNG선 2척 계약의 옵션 분으로 알려짐. TMS Cardiff는 현재 현대중공업에 3척, 삼성중공업에 2척의 LNG선을 발주한 것으로 파악됨. (TradeWinds)

Heavyweights have designs on Belbazerem

Al Yast Petroleum의 Belbazerem Offshore 프로젝트에서 FEED와 EPC 계약을 포함한 디자인 경쟁을 준비 중으로 알려짐. Al Yast는 PQE에 2~3개 업체를 선정해 2~3달간 경쟁을 벌일 계획이며, 글로벌 주요 EPC 업체들과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총 8개 업체가 사전입찰 미팅에 초청됐다고 알려짐. (Upstream)

한국 상대 또 투자피해 소송…스위스 쉰들러 3천억 ISD 예고

법무부는 지난 11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제출한 투자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협상의사가 있는지 진작하는 서면 통보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입은 손해가 최소 2,92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현대重 휴가 전 임단협 타결 불발…노조 추가 투쟁 예고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20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노조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교섭이 결렬된 이후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짐. 사실상 여름 휴가 전 교섭이 끝난 상황으로, 노조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초 더 큰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짐. (뉴스1)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7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0%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